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 흉삼액 50상자 기부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엽)은 6일 관내 저소득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기 위해 흉삼액 50상자를 기부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희망2022 나눔캠페인」에 동참하였다.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 김태엽 대표는 "정성껏 재배하여 만든 흉삼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나눔과 기부를 통해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제시 관계자는 "꾸준한 나눔활동을 해주고 계신 김태엽 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박노태 기자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 2050 탄소중립 캠페인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회장 황승일)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임순)회원들은 지난 6일 기후 위기 2050 탄소중립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회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생활 속 작은 실천을 강조하며 대가전력 차단, 적정 실내온도 유지, 대중교통 이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배출량 줄이기 등 지구를 구하는 습기로운 행동수칙을 홍보했다.

황승일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장은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작은 행동들을 함께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익산 황등서부교회, 사랑의 나눔 상자 전달

익산시 황등서부교회는 6일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사랑의 나눔 상자를 전달했다.

황등서부교회는 새해를 맞아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고추장, 된장, 설탕, 밀가루, 쌀 등 식료품 19종으로 구성된 꾸러미 20상자를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직접 전달하여 종교적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황등서부교회 이진남 담임목사는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어려운 이웃들의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전북 최초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성공

전북대병원, 영상의학과김건영 교수 간암 치료법 TARE 시술 성공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간암 치료법인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TARE는 방사성동위원소가 함유된 방사선 미세 방출구를 간종양에 주입해 병변을 괴사시키는 신의료기술로 기존의 치료방법인 간동맥화학색전술(TACE: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보다 시술 후 복통 발열, 구토 등 부작용이 현저히 드물게 나타나 치료 후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입원기간도 2일 정도로 매우 짧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수도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북 지역에서는 최초로 이번 시술이 이루어져 지역 환자들이 보다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TARE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시술이지만 시술비와 재료를 포함해 15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비용이 환자에게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TARE가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되면서 환자 부담률이 50%로 줄어들고 심비보



동맥으로 주입돼 간암의 미세 혈관에 자리 잡은 후 간세포안 내의 미세 혈관에 남아 종양을 직접 괴사시키는 원리로 중앙 환자를 치료한다. 중앙 주변의 건강한 간세포에는 방사선 영향을 최소화하고 간 종양에 국소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며 기존 TACE로는 치료가 어려운 큰 종양에도 치료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비엘엔에이치(BL&G)가 테라스피어의 수입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최대희 기자

합도 청구가 가능하게 돼 향후 널리 시행될 전망이다.

TARE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테라스피어'는 방사선 물질인 이트륨(Yttrium)-90으로 평균 지름이 20~30마이크로미터(μm)의 작은 유리구슬 형태의 미립구(microsphere)들로 이루어져 있어 환자의 대퇴동맥을 따라 간



전북대생들, 철강 분야 문제해결 프로젝트 우수

전북대학교 금속시스템공학 전공 학생들이 한국철강협회 철강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철강 SC)가 마련한 제5회 금속학습그룹 최종 보고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 그룹별로 기업 현업문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포스코와 동국제강, 세아제철 현장 연구원과 전북대 등 8개 대학 금속 전공 학생 10개 팀이 4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수행해 철강 관련 분야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주는 대회다.

실제 2020년 참여 학생 중 현대제철, 세아제철 등 철강 기업에 6명이 취업했고, 철강학습 관련 심화학습을 위해 9명이 철강학습 관련 대학원에 진학했다.

금속시스템공학 학생팀은 이 대회에 이주현 정승익, 김성진, 신우철, 최정호 학생이 참여해 재가열 공정에 의한 STB2 베어링강 탄화물 거동 평가 를 주제로 4개월 간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학생들은 탄화물 편상 품질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재가열 조건 속 거대 탄화물 거동 및 분해능을 평가해 최적의 재가열 조건을 설계했다. 추가로 압력 부하 동시 적용 시 가열로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이에 실제 철강산업에서 가열로 공정 단축은 연료비 감소 및 유해 배기가스 저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돼, 앞으로 이와 같은 최적의 공정 및 압연기술 확보를 통해 강화되는 탄소중립 규제와 같은 환경 이슈에 대한 대처가 필수적임을 각인시키는 등 심사위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정은성 기자

예수병원, '2022년 미래선도의료' 비전 선포식 개최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은 본관 4층 예배실에서 '2022년 미래선도의료' 도약을 위한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비전선포식은 COVID-19 확산세 및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 비전을 김철승 병원장이 다시 강대하고 위대한 예수병원'을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발표를 이어나갔다.

예수병원은 2019년 김철승 병원장 취임이후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뛰어나며 대외적으로 큰 성장이 있었으며 병원을 둘러싼 주요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할 시점이라 판단해 새 비전을 새로운 방식으로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비전 실현의 밑바탕이 될 2022년도 예수병원의 미래의 청사진을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목표의식도 함께 부여 했다. /김윤상 기자



김철승 병원장은 "예수병원이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설립이념과 비전을 토대로 전 직원이 노력했기에 가능했다."며 "병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 비전과 핵심가치를 전직원이 가슴에 잘 새기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로 보답하자."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같이가요 forever 봉사단, 성금 500만원 기탁

같이가요 faever 봉사단(회장 모건중)은 6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돼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돕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같이가요 faever 봉사단은 지난 2017년부터 전주시 장학금 500만 원, 전북장애인체육회 성금 200만 원, 이불 50채,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연이어 후원하는 등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해왔다.



모건중 회장은 "우리 봉사단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불우이웃을 위해 경제적 후원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돼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지난 2017년부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주고 계시는 봉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나눔 문화에 대한 성원을 통해 전주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교육문화회관, '겨울 독서교실' 운영

전주교육문화회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10~21일까지 초·중·고등학생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서교실에서는 책 속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타버스 플랫폼 체험 및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제작 등 참가 학생들이 메타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메타버스의 주인공이 된 아이들'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환경의 필요에 따라 메타버스가 급부상했지만, 메타버스에 아직 익숙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개념학습부터 프로그램 제작까지 단계별 과정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이프랜드에서 나만의 랜드 만들기 △제작 토크를 활용한 나의 부캐 만들기 △로블록스로 게임 제작하기 △게더타운 이해 및 환경체험 △코스페이스יס트로 전래동화, 창작동화 제작하기 등으로 구성했다. /정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